

사회변혁의 중개자로서 기독교인 이미지 연구 — 이태준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

민 혜 숙*

요 약

이태준의 소설은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 『해방전후』를 통해 나타난 작가의 사회의식과 현실인식 그리고 월북 사건과 해방공간에서의 활동을 참작해 볼 때, 해방으로 외적 상황이 유리해졌다 할지라도 작가의식이 그렇게 급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회의식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작가의식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던 식민지하에서 이태준은 주로 장편 소설의 기독교인 주인공을 중개자로 내세워 농촌계몽과 사회변혁, 이상사회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다. 즉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의 구도처럼,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꿈을 기독교인을 중개자로 삼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소 통속적이라고 평가되는 장편소설을 통해 이태준이 기독교인 주인공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사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태준은 사회 구원이나 계몽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개인의 구원에 치우치거나 교세의 확장을 위한 포교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태준의 사회의식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소설적 활용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태준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기독교 이미지는 보편적이기 보다는 식민지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가치가 강조된 이상적 기독교 이미지이다. 기독교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천사, 선한 사마리아인, 성모의 이미지를, 부

* 호남신학대 겸임교수

정적으로는 위선자, 변절자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은 『청춘 무성』의 원치원 목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된다. 결과적으로 이태준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고 세속적 삶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미지로 조화롭게 귀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태준이 바라는 이상적 이미지일 뿐 다소 비현실적이다. 이와 같이 투사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상적 이미지와 현실 이미지의 괴리감을 초래하는데 일조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인 이미지, 투사, 욕망의 삼각형, 천사 이미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미지, 성모 이미지, 위선자 이미지, 변절자 이미지.

목차

1. 들어가며
2. 기독교인 이미지 형성의 배경과 욕망의 간접화 현상
3. 기독교인의 긍정적 이미지 투사
4.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 부각
5.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을 넘어서
6. 나오며

1. 들어가며

1930년대의 순수문학을 대표하는 구인회의 멤버인 이태준을 평할 때, 문체의 탁월함, 성격 창조와 선명함, 형식의 완결이라는 문학적 특질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반면에 ‘사상의 결여’라든가 ‘낭만적 허위의식’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교의 완숙’은 있으

나 그것은 부분적인 장점일 뿐 감상적 패배주의자 혹은 낭만적 허위의식자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도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이태준의 작품을 현실의 반영과는 거리가 먼 ‘순수’문학으로 치부해버리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해방전후』, 『농토』 등을 통해 나타난 작가의 사회의식과 현실인식 그리고 월북사건과 해방공간에서의 활동을 참작해 볼 때 그러한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실상 이태준은 1930년대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동시대에 대한 연민과 사회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일제 식민지라는 폭압적 상황에서 이태준은 바보 같은 인물 유형을 설정하거나 우직하고 순진한 촌뜨기의 입을 빌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전달한다. 혹은 비참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나 아이러니와 같은 기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²⁾ 이와 같이 외적인 장애물이 있을 때 작가는 감추기 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의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발표된 『농토』, 『해방전후』에서는 사회의식이 소설미학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이태준이라는 작가의 의식이 변모된 탓이 아니라 온전한 드러내기가 가능한 주변 상황의 변화 탓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월북 이후, 작가의 기대와 어그러진 김일성 집단이라는 외적 장애물이 작가의 창조적 자아를 억압하자 작가 의식은 다시 서정적 묘사라는 소설미학 뒤로 물러서는 현상을 보인다. ‘수령’ 찬양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감춰진 작가의식이 포착되어 결국 이태준은 숙청당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작가의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감추기와 드러내기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기인편, 『이태준』, 새미, 1996, 9-13면.

2) ‘상허는 일본 제국주의의 절대화된 세계에 굴복하는 방법으로 아이러니 기법을 차용한다.’

장영우, 『이태준』, 한길사, 2008, 52면.

이태준 소설을 일반적으로 세 시기로 나누고 있지만,³⁾ 본고에서는 그러한 구분과 무관하게 1930년대의 장편소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신문에 연재되었던 이태준의 장편소설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행위를 넘어 당대의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였다면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연애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킨 후에 조선청년을 계몽하려는 전략적 장치이며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신적 근대주의, 혹은 정신적 문화주의의 표현의 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⁴⁾ 또한 예술가의식이 장인적 기교를 강조하는 근대적 미의식의 소산이라면, 지사의식은 글 자체보다 그 안에 깃들인 정신을 강조하는 전통적 미의식의 산물인데 이 두 의식이 맞물려 존재하는 것을 처사의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⁵⁾ 그러나 지사의식이나 처사의식만으로 이태준 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방용호는 이태준 장편소설이 계몽성과 통속성, 정신지향성과 물질지향성, 근대지향성과 반근대지향성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 어쨌든 작가는 전자를 지향하고 있는데, 김택호는 속물성에 대립되는 초월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초월적 가치’는 근대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라고 하였다. 그런데 『구원의 여상』의 인애에게 이와 같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 그러나 필자는 주인공들을 움직이

3) 이선경은 이태준의 작품을 「오몽녀」를 발표한 1926년부터 1937년까지, 1938년 「폐강행」에서 1946년 「해방전후」, 그리고 1947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이선경, 「이태준 소설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9면.

4) 김택호,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6. 3면.

5) 이선경, 「두 개의 근대성과 처사의식-이태준의 작가의식」,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60, 84면.

6) 방용호,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7) 김택호, 위의 책, 83면.

는 초월적 가치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태준의 사회의식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기독교 정신과 접목되어 더욱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이태준의 장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상당수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믿음과 구원이라는 보편적 기독교를 넘어서 빅토르 위고나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서 전파되거나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이 갈구하였던 현실개혁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태준 역시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독교인 주인공을 중개자로 삼아 농촌계몽과 사회변혁, 이상사회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욕망⁸⁾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작가 이태준의 사회의식과 결부된 기독교인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 기독교인 이미지 형성의 배경과 욕망의 간접화 현상

이태준의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인 이미지를 살펴보기 전에 1930년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제하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외세를 등에 업은 기독교에 의지한 면도 있지만,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 고아원을 세우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민중들에게 다가갔다. 교육과 의료혜택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으며 일제하에서 민족운동을 지지하고 옹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심지어 복음주의적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까지도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

8) 김은정,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 욕망의 서사적 구성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2.

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였으나 그것은 민족을 위한 충절 이미지에 부합되었다.

특히 식민지하 한국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와 참여적인 기독교 특성에 노출되어 있었고, 지식인층의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참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민족운동, 인격도야,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갔다고 한다.⁹⁾ 그리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기독교 정신 속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애(愛)의 사회’, ‘애(愛)의 정신’이 이상사회의 기본원리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¹⁰⁾ 그러한 정신은 실제인물 최용신을 모델로 삼은 심훈의 『상록수』처럼 헌신적인 기독교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구현되었다.

기독교는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근대화의 통로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하 지식인들의 정신적 문화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물질을 부정하고 제도나 정신을 긍정하는 정신적 문화주의는 내면의 초월적 가치에 대한 ‘지향성’의 표현으로 정신문화, 이상사회 건설을 추구하였다.¹¹⁾ 이호숙은 ‘통속적 욕망’이 ‘민족을 위한 욕망’으로 전치, 승화되는 현상을 은폐와 합리화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¹²⁾, 이 욕망의 승화과정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당시 엘리트층의 기독교 수용은 유교의 이념 위에 기독교의 높은 이상을 결합하여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었다. 특히 우치무라 간조의 로마서 강의를 들었던 김교신과

9)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127면.

10) 노치준, 위의 책, 172-173면.

11) 김택호, 위의 책, 43, 69면.

12) 이호숙, 『이태준 소설의 이중욕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2.

함석헌 등의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성서조선』이라는 동인지
를 출간하게 된다. 이 잡지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노평구, 손
양원, 장기려, 유영모 등의 영향력 있는 독자를 두게 된다. 양정교
보에서 교편을 잡던 김교신은 『성서조선』을 통해 서양식 기독교가
아닌 조선식의 민족적 기독교를 주창하며 불필요한 형식을 배제하
고 성서의 본연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여 무교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교를 신봉했던 김교신은 일본 유학시절 기독교를 받
아들이면서 식민지 조선의 살길은 성서의 정신에 입각하는 것이라
는 신념을 가진다.¹³⁾ 그는 이승훈과 유영모 그리고 친구인 함석헌
과 교류하면서 성서를 통해 조선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손기
정, 유달영¹⁴⁾, 윤석중¹⁵⁾ 등의 제자를 배출하게 된다. 교육과 사회
봉사를 통해 정직한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힘썼던 김교신의 무교회
주의는 당시 엘리트층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유학을 바탕
으로 한 기독교 사상은 지사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띄게 되었
다.¹⁶⁾

이러한 성향은 이태준의 장편에서 ‘관동의숙’이 상징하는 바의 계
몽과 공동체 지향주의로 나타나며, 『농토』에 이르면 지주와 소작인
의 구분이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관념적 사회주의자로서의 면

13) 김교신, 노치준 편 『조와』, 동문선, 2001.

14) 유달영은 당시 김교신의 권유로 피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브나르도 운동에 참
여하였고 의대나 법대가 아닌 농과대학에 진학하였다. 김교신은 또한 담임 반
학생으로 수석졸업자인 김중면을 농과로 진학시켰다. (김교신, 『김교신 일보』,
홍성사, 2016. 211면.) 김교신은 심훈의 『상록수』가 최용신의 헌신보다는 청
춘 연애를 부각시켰다고 보고 유달영에게 『최용신 소전』을 쓰도록 하였다. 유달
영, 『최용신의 생애』, 성천문화재단, 1998. 참고.

15) 이태준의 작품에 윤군이라고 지명된 이가 동화작가 윤석중이며 따라서 이태준
은 우찌무라와 김교신의 기독교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태준의
추천을 받은 임옥인도 김교신의 함흥 영생교 교사시절 제자임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 김정환, 『김교신』, 한국신학연구소, 1980. 30-44면.

모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망하는 세계'에 대한 작가의 동경이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태준의 사회의식을 '낭만적 동경' 혹은 '주관적 동경'이라고 평한다.¹⁷⁾ 또한 권은은 30년대 이태준 장편소설의 기독교적 모티프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현상을 충(忠)과 은(恩)이라는 유교적 덕목을 기독교의 속죄와 구원에 연결시켜 고찰하고 있다. 즉 친일파의 도움을 전제로 일본 유학이 가능했던 주인공들의 은폐된 제후관계 대한 원죄의식을 민족주의 운동으로 속죄하려 한다는 것이다.¹⁸⁾

실제로 이태준은 소설 속에 농촌운동이나 구제사업, 문맹퇴치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독교인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즉 사회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기독교인 주인공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우회적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플랑쉬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 '투사란 주체가 자신을 몰아내고 다른 것 즉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위치하는 과정'이라고 한다.¹⁹⁾ 마치 르네 지라르가 중개물의 간섭에 의해 투사되는 '삼각형의 욕망'을 설명한 것처럼, 주체인 작가 이태준은 사회변혁, 이상향, 낙원을 꿈꾸면서 그 실현을 위해 기독교인을 중개자로 삼고 있다.²⁰⁾ 이태준은 초월적 가치를 지닌 정신적 문화주의자로서의 자신

17) 강진호, 『동경과 좌절의 미학』,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105-107면.

18) 권은, 『은폐된 제후관계와 식민지 지식인의 원죄의식』, 『현대소설연구』, 62호, 2016. 9면.

19) Laplanche et 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UF, 1976, p.344.

20) '어느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곧 예수라는 중개자를 모방하면 된다. ... 다시 말하면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대상과 그 욕망의 중개자가 삼각형의 구조를 갖게 되고 이처럼 간접화한 욕망을 '삼각형의 욕망'이라고 부른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대상 사이의 관계를 기존의 직선 구조에서 중개자를 추가한 삼각형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주체가 스스로 욕망을 실현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모방할 중개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의 정신적 지향을 기독교인을 중개자로 삼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투사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내세의 구원과 내적 평화보다는 사회변혁, 선비정신과 기독교적 지조가 결합된 지사, 혹은 행동하는 투사의 이미지에 가깝다. 김종균은 이태준 소설의 주인공들을 교양적, 통속적, 생활적 인물로 구분하는데, 이태준이 지향하는 교양적 인물이란 『화관』의 예를 들면,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상실현을 위해 사랑의 세계에 머무는’, 즉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다.²¹⁾ 이태준은 기독교인의 이러한 헌신적이고 변혁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대로 기독교인의 행위가 공공의 정의나 사회변혁에 위반될 때에는 가차 없이 비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태준의 1930년대 장편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기독교인의 긍정적 이미지 투사

1) 민중을 위한 천사의 이미지 - 『화관』을 중심으로

이태준의 장편소설들은 주로 신문에 연재되었고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때문에 대중이 좋아하는 플롯, 즉 애정의 삼각관계를 주된 틀로 하고 있다. 이태준의 장편소설에는 대부분 부잣집 딸과 가난한 고학생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등장하는데, 그 둘 사이의 갈등구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를 그리고 있다. 다른 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화관』 역시 동일한 삼각관계의 틀을 유지한다. 이러한 배

르네 지라르, 김치수·성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11, 24면.

21) 김종균, 이태준 장편소설 『화관』 연구, 어문논총, 고려대학교, 400-409 면.

경의 근저에는 돈이 대표하는 현실에 적응하려는 현실주의자와 암울한 현실을 개조하려는 이상주의자, 다시 말해서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²²⁾ 『화관』에서도 젊음과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통속적 인물 황재하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여성으로 전문학교를 다닌 교양적 인물인 기독교 신자 임동옥은 확연하게 ‘고귀한 정신의 삶’을 지지한다.

“석가나 예수 같은 인 몸은 몇 천 년 전에 죽었어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숨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도 뛰놀며 있습니까? 성인은 그만두고라도 『부활』을 읽을 때 톨스토이를 『레미제라블』을 읽을 때 위고를 얼마나 산사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고 아주 죽는 그런 죽음을 하지 않으려는 데다 오히려 청춘의 정열을 쏟아야 안할까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동물 중에 양심을 소유했던 영광 있는 인류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²³⁾

그러나 현실을 대표하는 다른 등장인물 배일현은 임동옥의 이상이 실현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배일현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침묵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은 타지 못하는 불과 같으며, 이상주의자의 생각은 바꾸라고 동옥을 설득한다.

“노력? 그것만으로 세상에서 승리 못하십니다. 사회가 모두 예배당 속이라면 모릅시다만 그런 천국이나 이상향은 인류의

22) 30년대 후반의 작품인 『화관』은 계몽성이 약화되고 여인의 행적이 작품의 주요 골격을 이룬다는 이유로 통속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준이 발표한 30년대 초반의 작품에 비해서 현실을 개조하려는 인물들의 이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고 악화된 정세와 암울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김한식, 『계몽성의 약화와 비판적 현실인식』, 『화관』, 깊은샘, 2001, 364-365면.

23) 이태준, 『화관』, 깊은샘, 2001, 76면

영원한 꿈일 겁니다. 물론 동옥의 그 순결한 극히 고답적인 기분엔 경의를 표합니다만 …, 기분입니다. 그건 의지도 아니요 사상도 아닙니다. 동옥씨보다 더한 철저한 십계명의 사자(使者)라 자칭하는 신부나 목사들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바리새 교인들이 없어서 예수처럼 나서 부르짖지 못합니까? 침묵은 양심이 아닌 줄 압니다. 그까짓 타지 못하는 불 뭘 합니까? 밤낮 공염불이지.”²⁴⁾

이와 같이 이상과 현실의 기로에 놓일 때, 교육받은 자로서 또한 시대를 감각할 만한 양심과 교양을 지닌 청년으로서 임동옥은 배일현 같은 이와 행복을 나누기보다는 박인철 같은 양심을 지닌 자와 불행을 나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화관』, 232면.). 깨끗하게 번 돈을 어려운 이들과 나누면서 비단 양말 대신에 무명양말 신기를 선택한 동옥은 주는 자의 기쁨이 받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을 알았다(『화관』, 308면.)고 한다. 발이 비단을 신지 못하는 대신 마음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단에 싸일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용기를 내면서(『화관』, 274면.), 좁은 길을 택한다.

임동옥은 어렵게 구한 중학교 영어선생 자리를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친구에게 양보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그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계속되는 현실의 압력 속에서 동옥은 돈의 위력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그러나 졸업사은회의 행사에서 화관을 뺐은 동옥은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화관을 혼인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시관으로 인식한다.

“화관!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관일지 모른다. 한 남편을 위해 신부로서의 화관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시대의 선수로서 세기의 청춘으로서 민중이 주는 시대가 주는 화관을 쓰자!”²⁵⁾(『화관』, 301면.)

24) 위의 책, 122면.

이와 같이 동옥은 황재하의 낭만과 배일현의 돈을 모두 넘어서는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 박인철을 선택한다. 박인철이 비록 물질을 없지만 개인의 욕망성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인간 임동옥은 현실에서는 괴로운 천사가 되어 사립 보통학교의 교사로, 야학의 선생으로 봉사하며 어려운 제자를 구제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한다. 하지만 그녀가 사모하는 박인철은 철저한 사회운동가가 되지 못하고 윤리적인 문제로 발이 묶여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한다. 임동옥은 그런 박인철마저도 용납하는 사랑의 화신으로 비현실적일 정도의 선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태준이 지향하는 바의 기독교인들의 이상형, 즉 좁은 길을 걸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이상주의자로서의 천사 같은 기독교인 이미지의 투사라고 볼 수 있다.

2) 선한 사마리아인 이미지 - 『제 2의 운명』, 『구원의 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몸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채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점진적으로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일 뿐, 완전한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태준의 주인공들은 장발장에게 은춧대를 선물한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신부처럼 완전한 사랑의 화신을 목표로 한다. 이태

25) 위의 책, 301면.

준의 자전 소설인 『사상의 월야』에서 소년 이송빈을 감동시킨 것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 괴테의 『베르테르의 설움』처럼 명작들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 인물들의 원대한 사상, 무궁한 사랑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것이 위고의 『희무정』이다.

송빈이는 일기책을 펼쳤다. 대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구절을 썼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으나 ‘희무정’에서 미리엘 승정을 읽고부터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²⁶⁾

그리고 그 선(善)의 화신(化身)인 ‘미리엘’ 승정에게는 송빈이 저 자신이 짝발잔인 것처럼 감사와 참회에 떨렸다.²⁷⁾

마찬가지로 『구원의 여상(久遠의 女像)』의 주인공 인애는 이태준이 그리던 바의 영원한 여인상의 화신으로 보인다. 인애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 얽혀있는 처지이다. 소학교 시절 덩치가 큰 아이에게 매를 맞고 있는 인애를 구해준 소년 손영조가 외삼촌택의 가정교사로 들어오면서 둘 사이의 사랑이 싹트게 된다. 그러나 여학교 졸업을 일 년 앞두고 외숙모는 인애를 강제로 재력가의 후처로 보내려고 한다. 외숙모의 계략으로 아무도 없는 집에 남아 있던 인애가 그에게 겁탈을 당하려는 찰라, 손영조가 다시 한 번 인애를 구출해준다. 오갈 데 없는 인애의 딱한 사정이 기독교 학교의 교장에게 알려지자 서양인 교장은 졸업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도록 인애에게 호의를 베푼다. 인애의 사정을 모르는 채, 인애와 가장 절친한 룸메이트 후배 명도는 손영조를 사모하게 되고 적극적 공세로 그를 유혹한다.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손영조는 물질은 없으나 의기는

26) 이태준, 『사상의 월야』, 깊은샘, 1988, 128면.

27) 위의 책, 126면.

있어 사회활동에 열심인 청년이다.

우정과 사랑 사이의 갈등, 그리고 손영조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인애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탐색하면서 애인을 빼앗아 간 명도에 대한 미움을 다스리고자 한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자기는 사탄의 농락을 받고 있는 죄인과 같다’고 한탄하면서 마음이 하나는 천사의 이야기, 하나는 악마의 이야기와 같다고 고백한다. 결국 천사의 길을 택한 인애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한다.

“내게 온전한 사랑이 있느냐? 하고 자문하여 보았다. 없다. 내가 명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괴로울 리 없고 내가 영조를 정말 사랑한다면 괴로울 리 없어야 할 것이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괴로움이 있을 수 없다. (...) 내가 사랑한다 하여 그들도 품앗이처럼 나를 꼭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진댄 사랑이란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못되고 괴롭게 원수스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성경에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 하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였다…….”²⁸⁾

물론 이것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어 인애는 일가친척 없는 자신이 모든 그리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친 영조를 탐내는 것이 과한 욕심인가? 하나님에게 묻고 있다. 그녀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다시 기어 올라갈 사닥다리를 놓아보는데, 그것은 ‘사랑이란 반드시 결혼을 요구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인애는 ‘내가 한번 사랑한 남자면 그가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의 남편이 되든, 또 그야 나의 사랑을 알아 주던 몰라 주던 오직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남성의 동경을 품을 것이다.’(『

28) 이태준, 『구원의 여상』, 깊은샘, 1988, 81면.

구원의 여상』, 88면.)’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결심한다.

“오오 나에게 이렇듯 귀한 사랑이 있노라.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이 다 무어랴. 하물며 조고만 질투이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모른다기로 그게 어떠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그 당자 한사람까지 모른다기로 그게 무슨 송이랴 오직 내 가슴 속을 한 점의 티가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오오 나의 적막한 행복이여!”²⁹⁾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가리고 얻은 행복은 적막할 수밖에 없다. 병약한 인애는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힌 영조의 옥바라지를 위해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사식을 차입해주고 빨래도 하면서 즐거워한다. 인애의 사랑은 인간 손영조를 넘어 그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류를 향한 의로운 행동으로 확산된다.

“나는 조고만 아주 변변치 않은 것이라도 의를 한 것뿐이다. 그 양복이 손영조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것이면 어떠냐. 내가 내 힘으로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의 더러운 옷을 빨아 주어 조그만치라도 그런 사람의 건강과 위안을 돕는다면 그것이 오직 나의 커다란 기쁨일 것이다. 그 사람이 하필 손영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³⁰⁾

인애의 경우처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작가 이태준이 바라는 이상적 기독교인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29) 위의 책, 88면.

30) 위의 책, 134면.

『제 2의 운명』에도 다른 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부잣집 딸과 가난하고 외로운 고아 처지의 남자와의 삼각관계 혹은 사각관계에 휘둘리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가난한 윤필재를 사랑하는 심천숙은 돈 많은 박순구와 그의 친구 강수환에게 속아서 윤필재를 오해하고 박순구와 결혼한다. 심천숙의 배신으로 상처를 입은 윤필재는 활달한 성격의 여선생 남마리아로 인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세상에 실망한 윤필재는 재정의 고갈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용담에 있는 ‘관동의숙’에서 가난한 시골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자 한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진다.

세상을 위해서, 이것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종의 유행심리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앞서지 못하고 공리욕이 앞서는 것이다. ... ‘나는 세상을 위협네’ 하는 것은 차라리 ‘나는 내 몸 하나를 위해서 사노라. 내 머리털 한 오리를 뽑아서 세상이 온통 잘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노라’하는 철저한 에고이스트보다 인간적으로 비열한 것이라 생각하였다.³¹⁾

세상을 위하여 살겠다는 신념도 결국 남을 나보다 부족하게 보는 데서 생긴 교만인 동시에 정몽주가 고려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 마음의 안락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몸의 자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기’에 충실한 결과라는 것이다. 윤필재는 ‘성삼문에게 머리를 숙이고 신숙주에게 조소를 던지던(『제2의 운명』, 213면.)’, ‘통일되지 않은 두 개의 나가 존재함’을 깨닫는다. 마음의 안락과 육신의 안락의 괴리에 대해 성찰하면서 그 어느 한 편을 배척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고백한다. ‘내 한 몸에서 마음의 나와 몸의 내가 싸우듯 인간의 사회도 마음의 사회와 몸의 사회가 싸우고(『제

31) 이태준, 『제2의 운명』, 깊은샘, 1988, 210면.

2의 운명』, 214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결국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공리욕마저 제거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인애나 윤�필재는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3) 위로와 구원의 성모 이미지 - 『사상의 월야』, 『성모』를 중심으로

『사상의 월야』에서 송빈은 종교는 인류가 불행하기 때문에 생겼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종교가 인류의 불행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종교는 인류의 불행을 해결할 수 없고 다만 위로할 수 있을 뿐이다.

아침 여섯시면 종현(鐘峴) 천주교당에서 으레 종소리가 울려왔다. 땡-땡 …… 단조한 금속의 소리나, 고통과 원망과 고독과 피곤으로 찬 송빈이의 귀에는 그냥 최고 최대의 음악이었다.

‘여기 인생의 진리와 위안이 있으니 오라’ 부르는 것 같고, ‘참아라, 믿어라, 오직 사랑해라’ 하고, 인종의 신념을 돌아주는 것도 같았다. 송빈이는 종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종교란 인류가 불행하기 때문에 생겼을 거대! 그러면, 종교란 인류의 불행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종교!’ 송빈이의 외로운 마음은 무엇에나 의지부터 하고 싶었다. 송빈이는 하루아침 다섯 시에 일어났다. 아침 미사종이 울리기 전에 천주교당으로 올라왔다. … 새벽하늘의 이슬이나 받아먹고 사는 듯한 눈 맑은 신부들이 검은 범의자락을 끌며 깊은 사색에 쌓여 거닐었고 한두 사람씩 모여드는 평신도들도 아직 먹고 자기는 항간에서 하되 언제든지 우리의 돌아올 데는 여기라는 듯이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극히 평화스럽고 담박한 얼굴들이었다.³²⁾

작가가 기대하는 종교는 불행한 인류를 구원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의지가 되는 피난처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은 종소리인데, 종소리에 이끌리는 곳에서 현실과 거리가 먼, 현실을 초월한 듯 평화스럽고 담박하게 살아가는 신부와 신도들의 공동체를 마주하게 된다.

이태준의 다른 장편소설 『성모』를 살펴보자. 소박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자란 열일곱 살의 안순모는 성에 대해서 감정 뿐 아니라 지식으로도 백지상태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나 서양부인의 은혜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순모는 동향출신 덕인의 집에서 기숙하는데 거기에서 만난 김상철을 사모하게 된다. 순모는 예수교 계통의 학교에 다니는 바람에 부흥주일마다 번번이 죄를 자백할 것을 강요 받는다. 자백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자백할 만한 죄를 지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의남매를 맺은 상철에게 기우는 연모하는 마음을 단념한다. 더구나 덕인과 상철의 관계를 오해한 순모는 핫김에 서양화가 박정현의 누드모델이 되어 그와 살림을 차리지만 박정현은 순모를 배신하고 부유한 여자와 함께 동경으로 떠나고 순모는 임신한 사실을 박정현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른다.

“자기의 몸속에 만물의 영장이 될 사람이 들어서 자라나는 것이며 모든 운명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생각하면 태모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지상의 천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룩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 무엇보다 맑고 고상한 정신으로 태아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인류의 가장 큰 두 지도자인 석가나 예수 같은 분도 세상에 나와 자라기 전에 먼저 그 어머니의 태안에서 자란 것을 생각하면 잉태중의 그 어머니의

32) 이태준, 『사상의 월야』, 깊은샘, 1988, 162-163면.

지위란 조금도 다름없이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것이다. 석가의 어머니 마야부인이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잉태 중에 있는 부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그대로 ‘모든 여자 중에 복된 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었다.”³³⁾

순모는 아이를 잉태한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이미지와 중첩시킨다.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를 잉태한 성모처럼 순모는 어렵게 기른 자신의 아들을 민족 지도자로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순모는 생활이 힘들고 주위 사람을 원망할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착한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성모』, 342면.)’고 다짐한다. ‘남을 생각하고 나를 평가하지 말자! 불만인 것을 원망하기 전에 적은 것이라도 기쁨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그것을 감사하며 살자!’(『성모』, 344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역경을 이겨낸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사랑에서 사회적 차원의 사랑으로 승화되어 가는 배경에는 이태준의 어머니 혹은 외할머니의 이미지가 형상화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³⁴⁾ 연약하면서도 강인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외로운 사람을 품어주는 위로와 구원의 성모 이미지가 기독교인의 이미지로 투사되고 있는 것이다.

4.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 부각

이태준은 사회 변혁, 이상적 사회 건설의 꿈을 기독교인을 중개자로 삼아 투사하였다. 그는 이러한 투사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사회의

33) 이태준, 『성모』, 깊은샘, 1988, 275-276면.

34) 이병렬, 『이태준 소설의 인물 성격화 유형』,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286면.

식을 드러내는데,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와 상반되는 경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1930년대 일제의 강압 속에서 그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나 사회변혁 보다는 개인 구원에 치중한 기독교인을 가차 없이 비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위선자 이미지 -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이태준의 짧은 소설 『천사의 분노』는 한 자선부인의 위선자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아마도 선교사로 보이는 P부인은 신을 뜻을 받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신의 대리자 혹은 선량한 사람이다. P부인은 어느 사회사업 기관의 자선부장으로 자선을 선천적으로 즐겨하였다.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거리와 골목에서 불쌍한 거지들을 초청하여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따스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자 한다. 그 결과 그녀의 집 앞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더운 물로 비누 세수를 하고 내복 한 벌씩을 얻어 입고 쌀밥과 고깃국이 있는 눈부신 식탁을 대한다. P 부인은 밤이 깊도록 과자와 차를 나누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사진까지 찍어주는 등 유감없이 손님대접을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몸처럼 아끼는 새 자동차 안에서 지난 밤 얼어 죽은 거지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천사 같은 P부인의 분노가 폭발하고 만다.³⁵⁾

천사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P부인은 과연 천사였던가, 단 하루의 자선을 베풀면서 스스로 만족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입한 걸인으로 인해 분노하는 위선자는 아니었던가, 작가는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P부인의 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베

35) 이태준, 『천사의 분노』, 『달밤』, 깊은샘, 1995, 171-173면.

픈 자선은 자기만족이나 과시적 성격이 짙은 위선자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두운 골목들, 어두운 골목에 들어찬 어두운 인생들! 예배당 종소리는 이들에게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멀다! 일 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나 돼야 무슨 액매기하듯 썰뿔뿔이나 들고 나와 돌으는 게 예수의 정신은커녕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냐? 이들에게도 정신이 있고, 정신이 있으면 밥 한 끼 보다는 몇 백배 심각한 정신상 고민이 있는 거다!³⁶⁾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 『사상의 월야』에서 송빈은 이렇게 기독교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고아 소년 송빈은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으나 배재학당 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모와 교과서 살 돈이 없어 입학을 포기하고 만다. 학구열에 강한 그는 강연회를 찾아다니며 공부도 하고 연설을 배우면서 ‘의지나, 금전이냐’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에 ‘의지’편의 연사로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어느 전문학교 학생회 주최여서 연사들이 전문학교 학생이 대부분이요, 중학생도 둘이나 끼었는데 그중에서는 배재학당 학생도 있었다. 그는 마침 ‘금전’ 편이었다. “옳지……내가 돈 없어 못 다닌 배재학당이다! 돈과 배재학당에 복수를 하자!”³⁷⁾

송빈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배재학당의 학생이 ‘금전’ 편을 드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배재학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송빈은 일본에서 고학을 하는 중 선교사인 베닝호프 씨를 만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여 자기네 테

36) 이태준, 『청춘무성』, 깊은샘, 2001, 316면.

37) 이태준, 『사상의 월야』, 깊은샘, 1988, 105면.

두리 안에 들어 올 때에만 자선을 베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독선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송빈이 일본에서 신문을 돌리며 고학생 활을 할 때 베닝호프씨는 ‘앞으로 예수를 믿으라’면서 송빈을 기독교 청년 기숙사에서 묵게 해주고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도록 돕는다. 게다가 자신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준다.³⁸⁾ 문제는 조선 유학생들의 스코트 홀 대관 신청을 베닝호프씨가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다. 복음주의자 베닝호프는 조선 학생들이 집회를 하면 공연히 싸우듯 큰 소리를 내고, 연단을 부서질 듯 차고, 걸상은 으레 한 두 개씩 부서지고 강당은 흙투성이가 된다고 한다. 담배꽂초도 함부로 버리고 침을 뱉어서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송빈은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논쟁을 벌이고 ‘아무런 단체에도 들지 말고, 유학생회에도 참가 말고, 예수만 진실히 믿는다.’며 미국유학을 보내주겠다는 베닝호프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와 결별한다.

세상에는 번쩍하면 남을 위해서란 빛나는 타이틀을 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생각하였다. 좁다란 조선 바닥에서도 잡지에서 서나 신문에서나 또는 어떤 교실에서나 강당에서 보면 남을 위해서, 즉 세상을 위해서 사옵네, 조선은 나의 님이옵네 하고 부르짖는 명사, 지사가 수두룩한 것을 기억하였다... 모다 말뿐이다! 자기 아내의 구두 한 켤레를 살 돈으로 고무신 두 켤레를 사다 남의 아내의 벗은 발까지를 신기는 사나이가 조선에 있느냐? 이것이다. 나 자신도 허턱 남을 위함네 할 것이 아니라 이 점을 따지고 나아가야 한다. ... 주체롭게 도와줄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악하게 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선이냐 악이냐 하는 관념부터 잡아 일으키는 자선가들보다 차라리 순

38) “제복과 수업료와 교과서 갑술 사십여원이나 월급 이외에 그냥 물어주었고 송빈이가 전문부일망정 조대의 제복을 입는 날 그는 자기 아들이나처럼 기뻐했다.” 『사상의 월야』, 깊은샘, 1988, 204-205면.

수한 인간, 진정한 자기 생명의 생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³⁹⁾

즉 송빈이 원하는 것은 개인 구원이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기독교인이다. 작가 이태준은 자신이 바라는 사회변혁의 이미지를 기독교인을 통해 투사하는데, 현실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 변절자 이미지 - 『제2의 운명』을 중심으로

성서에서 예수를 판 제자 유다는 변절자와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다. 유다는 자신의 이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메시아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이와 같이 이태준의 소설에는 애초에 품었던 이상이 현실에 부딪쳐 좌절되면서 변절하는 목사와 교사가 등장한다.

현실과 이상,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바르고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처음부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통속적 인물들은 문제 삼을 것도 없지만, 좁은 길을 걸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구나 『제2의 운명』에서 동욱은 친구 선숙의 아버지이자 자신이 다니던 예배당의 담임목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정어리기름 공장을 경영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 게다가 학창시절 예술가로 존경받던 음악선생이 ‘생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 공장에서 창고관리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39) 이태준, 『제2의 운명』, 깊은샘, 1988, 209~211면.

“더구나 유목사님은 늘 ‘사람이란 일용할 양식만을 받으면 족하다, 그 이상 은혜를 바라다가는 도리어 화를 받을 것이다.’ 하시던 분이요. 오선생님은 너무나 여러 번이나 ‘위장으로만 배고픈 줄 아는 사람은 야만이다. 적어도 문화인은 눈으로도 배고픈 줄 알고, 귀로도 배고픈 줄 알아야 한다.’ 하시던 분이 다. … 유목사나 오선생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건 속은 것만이 분할 뿐이겠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훌륭한 교훈들이 것처럼 실현성이 없는 것인가 생각됨이 슬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현상을 변절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이상적인 꿈을 동경하면서도 현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의 비애로 여겨야 할 것이다. 물론 작가 이태준 역시 현실에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을 동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압력에 굴복해버린 등장인물과 대조적으로 주인공 임동옥을 모델로 삼아 ‘제 2의 운명’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을 넘어서

『청춘무성』에서는 주인공이 목사로 등장하는 만큼 기독교에 대한 이태준의 입장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원치원 목사와 그를 사랑하는 고은심과 최득주라는 두 여성이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역시 계몽적인 색채가 짙다. 우선 원치원 목사를 소개하는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위의 책, 93면.

동경서 신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 교회는 아직 자신이 없노라고 말지 않고 이 학교 성경시간만을 보나 무교회주의자인 내촌감삼(內村鑑三)⁴¹⁾의 감화를 많이 받아 속으로는 사교전도 사업에 대한 회의가 크다. 그래서 역시 사업전도의 한 기관인 이 학교에 들어서면 가끔 우울해지는 때가 있고 성경해석도 대담히 과학적 견해에 치우치다가 가끔 자기 이론의 모순에 부딪쳐 결론을 수습하지 못한다.⁴²⁾

원치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교회를 말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목사다. 그러나 속마음은 무교회주의를 따르고 싶고 학교 교육을 빌미로 신앙을 포교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또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자 한다. 아마도 원치원 목사는 이태준이 바라는 가장 이상주의적인 기독교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묵묵히 남의 죄를 지고 가면서 사랑으로 어린 양을 교화하고자 한다.

그는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 학교에서 최득주라는 불우한 학생을 만나고, 기생 언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그 학생을 도우려고 애쓴다. 그 과정에서 원치원은 돈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좌절한다. 이상주의자 원치원은 돈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돈을 벌고 사용하기 위해 음식도 절제하며 생식을 시작한다. 원치원은 생활고로 인해 카페의 여급이 되어버린 최득주를 구하려고 주변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술집으로 그녀를 찾아간다. ‘세상은

41) 일본 유학시절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은 함석헌, 김교신, 정상훈 등 6인은 1927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무교회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조선을 성서위에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후에는 양정고보 교사였던 김교신이 단독으로 잡지를 출간하다가 1942년 『조와』라는 권두언이 말썽이 되어 158호로 끝을 맺었다.

42) 이태준, 『청춘무성』, 깊은샘, 2001, 14면.

확실히 악한 편이고 악을 파는 최득주는 악의 씨다. 그러므로 최득주를 구원함은 최득주 개인뿐 아니라 세상의 일부를 구하는 일이 된다.’ 고 자신을 합리화한다(『청춘무성』, 98면.). 그러나 최득주는 오히려 술이나 여자, 그리고 향락을 외면하는 원치원에게 산송장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라고 충고한다.

“선생님을 산송장 노릇하게 하는 그 개념의 관 속에서 나와 껍질 벗은 매미처럼 신선하게 한번 인생을 날으루 노래하구 해 보세요. … 술은 뭣하러 금하는 거야요? 술을 먹음 죄짓기 쉽다, 그 죄란 것두 우순게지만 죄지을까봐, 까봐 때문에? 체할까봐, 체함 죽을까봐 밥은 어떻게 먹나요? … 참! 우리 원선생님께선 그러게 현명하셔 이런 공격에 엄연하시려 진작부터 생식을 하시니! … 나 득주 아냐요. 다마짱, 여기선 다마짱이예요. … 그 찬양대의 선남선녀들 부럽지 않아요. 저기 보세요 저 칵테일 만드누라구, 술병을 들고 똑 대내린 무당처럼 팔을 떨구 섰어두 성경 든 목사님보다 결코 못한 사람아냐요. 되려 거짓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예요. 아아주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덮어놓구 이단시허구 죄악시허구 권력자와 부자들한테 아침하구 천당엔 온통 저희들만 갈 것처럼 서둘르구 그 독선적인 태도 못써요. 예수야 정말 어디 독선적이었나!”⁴³⁾

위의 말은 실상 최득주의 입을 빌어 작가 이태준이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쳐놓은 것이다. 최득주는 생식을 고집하는 금욕주의자 원치원에게 살과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살라고 충고한다. 원치원은 자신을 따르는 고은심에게 마음이 기울지만 우선 길 잃은 어린 양 최득주를 구해내기 위해 돈을 벌 길을 찾는다. 그는 영어번역을 해주기로 하고 선금 백원을 받아 최득주의 빚을 갚아주지만, 이런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최득주의 연극

43) 위의 책, 80-81면.

과 방해공작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고은심은 실연의 아픔을 안고 사촌오빠의 권유대로 미국 교포와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원치원은 비로소 은심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독백한다.

동경에서 은심을 만난 원치원은 생식을 그만두기로 한다. ‘저만 제방에서 식탁도 없이 날무나 쌀가루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은심을 동무해주기 위해 치원은 여러해째 습관해 온 생식도를 험하게까지 이르렀다. 날무와 쌀가루와 과일만 먹던 입에 따스하고 짹짹하고 매웁고 쫄깃쫄깃한 익은 고기와 차진 이밥의 감각이란 배를 불린다는 것보다 우선 미각으로 향락적인 것이었다.’(『청춘무성』, 230.). 생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집착하던 주의와 사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서울로 돌아가 돈을 벌기로, 즉 사의 찬미자가 아니라 생의 찬미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물질을 경시하면서도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깨고 관념적인 틀에 갇힌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등장인물 중 최득주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사람을 대표한다.⁴⁴⁾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고은심과 원치원이 헤어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고은심과 원치원이 화해하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카페 여급과 같은 천시받는 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사업 기관을 세우고 대모역할을 하며 자신의 사명감을 찾아간다.

일허자! 약한 사람 편이 되자! 고민 있는 사람을 위해 일을 허자! 청춘이란 인생의 최대의 가능성을 함축한 정신이요 육체 일 것이다!⁴⁵⁾

44) “은심과 원선생이 결혼하기를 바랐으면서도 그것은 경우를 생각한 결론에서요, 솔직한 욕망에서는 아니었다. 아널 뿐 아니라 그런 뉴스가 들릴까봐 자기의 귀가 항상 무서웠다.” 위의 책, 302 면.

원치원은 몇 번의 실패후에 수리조합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각종 교육, 문화사업이나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하층계급의 여성들을 위한 기관의 후원자가 된다. 최득주는 이 돈으로 카페를 열고 여성들을 위한 기관을 세우고 고아와 사생아를 받아 양육한다. 원치원은 사랑에도 솔직해져서 고은심과 결혼하면서 동시에 최득주가 기르던 9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다. 삼각관계로 시작한 소설은 이상적이고도 다소 부자연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원치원 목사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 소설은 금욕주의자 목사가 좀더 솔직하게 인간적 욕망을 인정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거룩한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즉 이상과 현실이라는 이분법이 이상적인 현실주의자로 합일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이분법은 몸의 사회와 마음의 사회로 확장되고 그것은 결국 '의'를 위한 삶으로, '양심의 발현'으로 건설된 문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통합되며 궁극적으로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구분이 없는 '낙원'을 향하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 결국 원치원 목사는 작가 이태준이 바라는 이상사회 건설의 중개자로서 작가의식의 투사물인 셈이다.

6. 나가며

지금까지 1930년대에 발표된 이태준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태준은 자신이 소망하는 이상사회를 기독교인 등장인물을 중재자로 삼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투사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통해 형

45) 위의 책, 316 면.

상화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수준 높은 이상적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와 현실의 기독교인 이미지는 어긋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태준이 투사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천사, 성모, 사마리아인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위선자, 변절자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선과 악, 정신과 몸, 의리와 물질, 이러한 모든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룰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모형으로 이태준은 『청춘무성』에서 원치원 목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상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경시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생식을 하던 금욕주의자였다. 그러나 물질에 속박당하는 정신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게 되고 현실을 직시한다. 또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금욕주의자의 상징인 생식 습관을 버리기로 한다. 그는 많은 돈을 벌어 거룩하게 쓰고자 교육, 문화, 구제에 사용하면서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천하는 모범이 된다. 원치원 목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돕는 이상향적 세계를 지향하는 작가의식이 투사된 중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태준이 지향하는 바의 바람직한 기독교인 이미지는 현실적인 삶과 이상주의가 조화롭게 결합된 건강한 삶일 것이다. 일제하 표현을 제약 받는 상황에서 이태준은 기독교인들을 중개자로 삼아 자신의 사회의식을 투사하였으며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 사회의 변혁을 꿈꾸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태준, 『친사의 분노』, 『달밤』, 깊은샘, 1995.
 _____, 『구원의 여상』, 깊은샘, 1988.
 _____, 『제2의 운명』, 깊은샘, 1988.
 _____, 『성모』, 깊은샘, 1988.
 _____, 『사상의 월야』, 깊은샘, 1996.
 _____, 『별은 창마다』, 깊은샘, 2000.
 _____, 『청춘무성』, 깊은샘, 2001.
 _____, 『화관』, 깊은샘, 2001.

2. 논문

- 강진호, 『동경과 좌절의 미학』,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103-127면.
 권 은, 『은폐된 계휴관계와 식민지 지식인의 원죄의식』, 『현대소설연구』, 62호, 2016. 5-35면.
 김은정, 『이태준 장편소설연구: 욕망의 서사적 구성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종균, 『이태준 장편소설 『화관』 연구』, 『어문논총』 34호, 199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399-419 면.
 김한식, 『계몽성의 약화와 비판적 현실인식』, 『화관』, 깊은샘. 2001. 363-376면.
 김택호,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6.
 방용호,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이병렬, 『이태준 소설의 인물 성격화 유형』,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261-288면.
 이선경, 『두 개의 근대성과 처사의식』,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54-86면.
 이선경, 『이태준 소설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호숙, 『이태준 소설의 이중 욕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 단행본

김교신, 『김교신 일보』, 홍성사, 2016.

김교신, 노치준 편 『조와』, 동문선, 2001.

김정환, 『김교신』, 한국신학연구소, 1980.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류달영, 『최용신의 생애』, 성천문화재단, 1998.

민충환, 『이태준연구』, 깊은샘, 1988.

상허문학회,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이기인편, 『이태준』, 새미, 1996.

장영우, 『이태준』, 한길사, 2008.

르네 지라르/ 김치수·성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11.

Laplanche et 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UF.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Images as Mediator of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Lee Taejun's novels

Min, Hye-Sook

Although Lee Taejun's novels have been criticized as having a weak social consciousness, but it's not true. Considering the artist's sense of society and reality through *Haebangjeonhu*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he activities in the time of liberation, and his defection to North-Korea, he had a sensitive social consciousness. Even considering external changes like a liberation, we are wondering if the artist's consciousness can be changed so easily. The artist living in a society has both a social self and a creative self. When the social self is threatened, the artist becomes immersed in the creative self and conceals the social consciousness in his work.

Under the colonialism, in which the artist's consciousness could not be revealed completely, Lee Taejun projected his desire for social transformation and realization of ideal society by introducing the Christian protagonists as an intermediary for his ideal society. In other words, like a triangle of desire of R. Girard's, he dreamed of constructing the ideal society through a mediator of Christians. In this article, I try to reveal the social consciousness that Lee Taejun projected by analyzing the images of Christian characters in his novels.

Lee Taejun was positive about the social salvation and enlightenment movement, but he showed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salvation of the individual or the propagation of the cross. The images of Christians in Lee TaeJun's novels are Angel image, Good Samaritan image, and Virgin image on the positive side. On the other hand, the images of hypocrites and apostates can be considered as negative images. He has also dealt with the conflict between ideals and reality, and this dichotomous image is overcome by Pastor Won chiwon, the main character of *Cheongchunmuseong(A Luxuriant Youth)*. The image of a desirable Christian presented by Lee Taejun is harmonized with the image of human pursuing holiness in a secular life, forming a common good beyond the dichotomy of ideal and reality. But this is only the ideal image that Lee Taejun wants. The images of the projected Christians thus exaggerated the expectation about Christians and consequently contributed to the gap between the ideal image and the real image.

Key words: The Image of Christians, Projection, Triangle of Desire, Angel image, Good Samaritan image, Virgin image, Hypocrite image, Apostate image

투 고 일 : 2017년 7월 19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1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